

## 도시가스사 공급전 안전점검 등 부당행위 방지 요청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수년간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 방지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번에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지식경제부의 조치는 법적 강제조치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강력한 '재정비 지시'라는 점에서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가스안전협회는 전국 공통으로 제출하는 시공사의 제출서류목록을 확정했다. 총23건의 서류 중 제출 11종, 조건부 제출 3종, 미제출 9종으로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각 도시가스사가 가스시공과 관련해 운영하는 내부 시방 또는 지침 중 현행 법령 또는 상세기준과 상충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올해 말까지 일제 재정비 할 것을 전국 도시가스사에 지시했다. 또한 안전관리상 내압·기밀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상세기준(코드)에 반영, 운영되도록 도시가스협회 등을 통해 제·개정 사항을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식경제부는 또 전국 시·도에는 도시가스사의 자체 내부규정 재정비 지도 및 관련 규정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법령 또는 상세기준(코드)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자체 시방을 적용함으로써 시공비용이

가스사용자에게 전가되고 공사기간 및 가스공급 지연 등을 초래해 각종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번 지식경제부 조치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가스시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사별 공급전 안전점검과 관련, 무리한 서류 요구 및 비표준화가 이뤄지고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은 현행 법령 또는 코드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상이한 기준을 적용(별도 기밀시험 요구 등)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영역 외 업무 아파트 등에 대한 공급전 안전점검시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등의 관리번호를 제출토록 강요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도시가스사의 월권행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2006년 가스시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산자부에 도시가스사 월권행위 시정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산자부는 현장조사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설문조사(전국 도시가스사 및 100여개 시공업체 대상)를 실시한 결과 일부 도시가스사가 시공업체에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월권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전국 공통 제출서류를 정하기로 하고 가스안전협회를 통해 논의해왔다. ○

## ※ 가스안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시공사 제출 서류

### ■ 제출(11종)

△가스공급신청서 △시공사 자체검사결과 기록표(사용시설 공급전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공사 관련 사진 △공사관련 도면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공사실명확인서(배관 연장표 포함)  
 △시공관리자 자격증 △PE 및 비파괴 관련 서류 △전기방식성적서 △시공감리필증 △분기입회 요청서

### ■ 조건부 제출(3종)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가스사용자가 시공비용 일부 부담시에만 제출)  
 △지적도 및 토지대장(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만 제출, 추후 문제발생시 시공사 책임)  
 △토지사용승낙확인서(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만 제출, 추후 문제발생시 시공사 책임)

### ■ 미제출(9종)

△점검신청서(시공사 자체검사결과 기록표로 대체)  
 △인입관 지원확인서(공사도급계약서상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 표시) △인허가내역서  
 △월사용예정량 최종산정결과(시공사 자체검사결과 기록표에 명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영수증사본 △사용시설물이력대장(시공사 자체검사결과 기록표에 명시)  
 △기준관 확인 및 처리협의를(가스공급신청서에 명시) △요금납부이행 계약서(영업 · 업무용)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 아편

그리스어로 무감각, 마비를 뜻하는 영어 나르코틱스는 마약을 뜻한다. 그리스인들은 아편이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고 양귀비꽃에서 아편을 뽑아내 환으로 만들거나 음료에 타서 진통제로 썼다. 양귀비를 아부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부용과 꽃잎 편 자를 합쳐 아편이라고 부른다. 1세기경 디오스코리데스는 <약의 재료>라는 저서에서 아편에 대해 기술했다. 이 저서는 수 세기 동안 약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재가 되었다.

한 나라 말기의 의사 화타도 환자에게 마약을 먹게 한 뒤 수술을 했는데, 외과에 뛰어났던 화타는 마비탕이라는 마취제로 전신 마취를 시도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수술에 성공했다. 17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아편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는데 19세기에는 아편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독일의 세르튀르너는 아편에서 모르핀을 분리했다.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모르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나 모르핀이 남용되어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 모르핀에 중독된 군인이 많아 아편 중독을 군인병이라고도 불렀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약국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었으며, 파리에서는 빅토르 위고, 보들레르 등의 문인들이 대마초 흡연을 하며 집필을 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산업 혁명 이후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잊으려고 아편을 사용했다.

가장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곳은 중국이었는데 남년노소 모두 아편을 피웠다. 아편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력이 무너졌고 관료와 병사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마피아가 마약 시장을 만들어 암흑가의 최대 산업이 되기도 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